

# 광주·전남 향후 10년 '폭염 위험도' 가장 높다

환경부 229개 지자체 평가  
광주·나주 등 19곳 '매우 높음'  
노인 인구 많은 전남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 시급

의 폭염이 발생해 건강상·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큰 폭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폭염 위험도는 하루 최고기온 등을 반영한 '위해성', 65세 이상·독거노인 비율 등을 고려한 '노출성', 도시화 면적 비율·인구당 응급의료 기관 수 등을 반영한 '취약성'을 고려해 측정됐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 지역은 2001~2010년 19곳에서 2021~2030년에는 48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 위험도 매우 높음 지역(48곳) 가운데 광주 지자체 5곳 전부와 전남지역 지자체 14곳(나주·강진·고흥·곡성·보성·순창·신안·영광·영암·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이 포함, 광주·전남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높음' 지역은 50곳에서 78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낮음' 지역은 64곳에서 32곳, '매우 낮음' 지역은 16곳에서 6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폭염의 위험은 전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험도가 '높음' 이상인 지자체는 2001~2010년 69곳에서 2021~2030년 126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폭염 위험도가 '높음' 이상인 기초 지자체가 전체의 55%에 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염 위험도 증가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하루 최고기온이 상승 ▲도시화로 인한 숲과 녹지의 감소 ▲고령화에 따른 65세 인구 증가 등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전남은 폭염 위험도의 원인 중 고령화와 응급의료기관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1일 '영산강살리기 대탐사'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화순군 북면 서우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 일대를 걷고 있다. 환경단체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물은 흘러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제14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는 만큼 우선 해당 지자체들은 가장 '폭염 예방과'를 정식 행정기구로 편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제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7만 587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22.3%)이 전국(평균 15.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달 10일 '폭염 대응 지원단'을 발족해 단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여건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지원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복절·학생독립운동

## 기념일 앞두고

## 광주·전남 체험 행사 풍성

제74주년 광복절(8월15일)과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앞두고 풍성한 나라사랑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광주백범기념관과 (사)백범문화재단은 "광복 7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기 위해 '광복에서 평화로' 체험마당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시 동구 학동 백범기념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 꽃 무궁화 약세사리만들기', '독립운동가 어록 써보기',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운봉길 의사가 돼 일본의 심장에 폭탄을 던져보는 '물폭탄 던지기'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행사 문외는 062-233-2477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학생독립운동 진원지였던 옛 나주역을 소재로 한 상시 체험프로그램 '독립을 담은 가방'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역 에코백'과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사건을 소재로 한 '건곤감리 에코백'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 이번 체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념관에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사무실(061-334-5393)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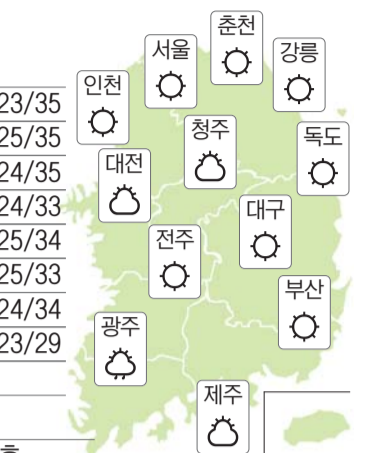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 뜨는 시각 05:42  
해 지는 시각 19:35  
달 뜨는 시각 06:35  
달 지는 시각 20:42

## 폭염 속 소나기

광주와 중부내륙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다.

광주	소나기	25/35	보성	맑음	23/35
목포	맑음	25/34	순천	맑음	25/35
여수	맑음	25/33	영광	맑음	24/35
나주	소나기	24/35	진도	맑음	24/33
완도	맑음	24/33	전주	맑음	25/34
구례	구름많음	24/35	군산	맑음	25/33
강진	맑음	24/34	남원	소나기	24/34
해남	맑음	23/34	흑산도	맑음	23/29
장성	구름많음	23/35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북동~동	0.5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	북동~동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동~남동	0.5~1.0	북동~동	1.0~1.5

## ◇ 생활지수

- 위험
- 매우 높음
- 좋음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21	03:06
20:25	15:06	
여수	03:46	09:51
	15:53	22:27

## ◇ 주간 날씨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	☀	☀	☀	☀	☀	☀
25/35	25/35	25/35	25/34	25/33	25/33	25/32

## 전남교육청 내년 예산편성 주민 의견 수렴

전남교육청은 지역민의 생각과 뜻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2020년도 전남교육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계획'을 1일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 수요자, 전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사업에 대해 연중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나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주민의견 149건을 접수해 예산반영 87건, 의견 수용 추진 19건, 향후검토과제 24건, 기타 19건 등을 처리한 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도진 예산정보과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제도"라며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진 예산정보과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제도"라며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남구, 9월 개관 오방 최흥종 기념관 운영단체 모집

광주시 남구가 오방 최흥종 기념관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하는 등 본격 개관 준비에 나선다.

남구는 "오방 최흥종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위탁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 단체

로,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학예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내정돼 있는 단체만 지원 가능하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2~13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 남구청 7층 문화관광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오는 9월말~10월초 개관 예정인 최흥종 기념관은 양립동 사직도서관 인근에 들어선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인권위 "초등학교 급식 저학년 어린이용 수저 제공해야"

초등학교 급식에서 1·2학년의 저학년 학생에게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1학년생인 피해아동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행동이 제약되는 인권 침해해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이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비용도

적다고 판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등 학교 급식에서도 아동 최선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154개 초등학교 중 151곳이 어린이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